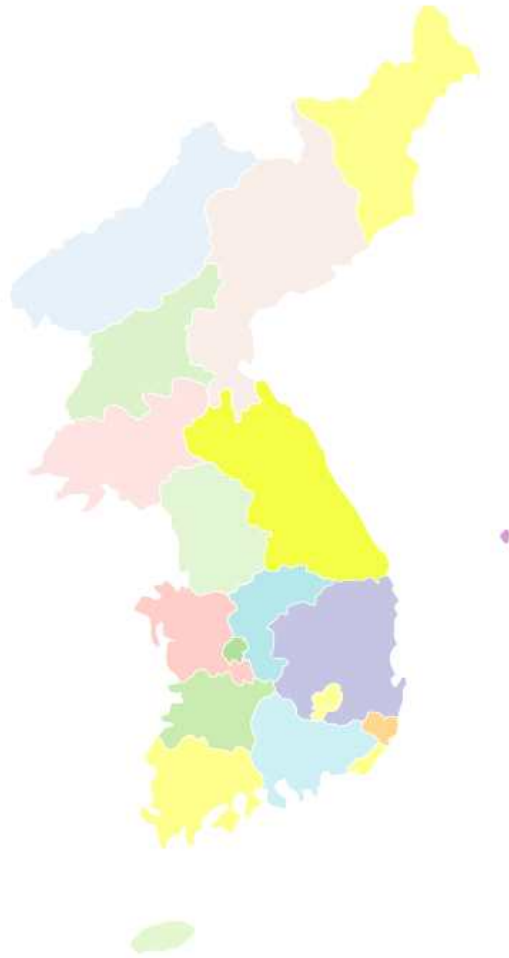


2019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정답과 해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헌법 제 3조 -

by MIKANG & 법과 정치

[전체]



[3점]



등급	실제 컷	수능 예상 컷
1	45	50
2	40	-
3	33	48
4	26	44
5	19	38

문항번호	교육청 출제의도
1	호남 지방의 지역별 특징을 이해한다.
2	조선 시대 지리지 특징을 이해한다.
3	이어도, 독도, 마안도(비단섬)의 지리적 특징을 파악한다.
4	주요 자연재해의 특징을 이해한다.
5	도시별 인구 변화 특징을 파악한다.
6	지역의 계절별 강수 분포를 이해한다.
7	해안 지형의 특징을 파악한다.
8	북한의 지역별 기후 특성을 파악한다.
9	소매 업체별 특징을 비교한다.
10	주요 제조업의 특징을 파악한다.
11	주요 하천의 특징을 파악한다.
12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의 생산 및 소비 특징을 파악한다.
13	석회암, 현무암의 특징을 파악한다.
14	GIS
15	하천 지형의 특징을 이해한다.
16	강원 지방의 지역별 특징을 비교한다.
17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을 파악한다.
18	도별 농업 특성을 파악한다.
19	수도권 지역별 특징을 이해한다.
20	권역별 인구 특성을 파악한다.

반갑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주관 2019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을 제작한
‘MIKANG’, ‘법과 정치’입니다. (세 명 같지만 두 명임.)

아직 개념이 부족한 학생도 있고, ‘이미 난 충분하다! 50점 GAZUAAAAA’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모두들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 많이 나오지 않은 자연지리
- 중점적으로, 나름 빠르게 출제된 인문지리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인문지리 파트는 교육청 치고는 빠졌지만, 수능
기준에서는 평이했다고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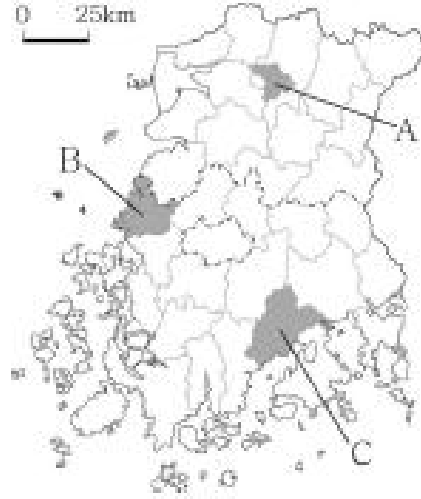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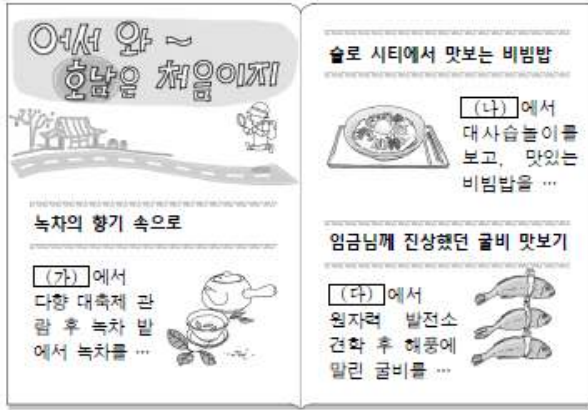
오답률 50% 이상인 문항들의 상당수가 인문과 자연지리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최다 오답
문항 TOP 3 모두 백지도에서 위치를 찾고 지역성을 통해 해결하는, 포괄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보기 선택비율을 보아하니 ‘낙시’를 골랐다가보다는 ‘???’ 하다가
아무거나 찍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시금 강조하겠습니다.
개념을 빠르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체화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위치는 빈출 지역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추론이고 뭐고 없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위치 추후 자료로 만들까 논의 중)

풀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든 생각은, ‘수능이었으면 2컷까지 50이겠다’였습니다. 1컷 50인
2019학년도 수능보다 많이 평이했음에도 불구하고, 1컷이 4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절대
1컷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 3모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미만 잡’은
과학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난이도 역시 평가원과 수능이 교육정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쫓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해 현재 자신이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한국지리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탐은 만점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1등급 나옵니다. 실제 1컷도 50이구요.
한국지리는 남은 8달 동안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승리의 한지러들을 응원합니다.

#1 호남 지방의 지역 구분

답 ④



(가)는 녹차 → 보성

(나)는 슬로시티, 비빔밥 → 전주

(다)는 굴비, 원자력 발전소 → 영광

위치에서 틀리셨다면... 외우셔야합니다. 아직 3월이니 충분합니다.

#2 고지리서 구분

답 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조정에서 발행한 백과사전식 지리서입니다.

택리지는 이중환이 제작한 민간 지리서입니다.

(가)는 백과사전식 서술로 신증동국여지승람임을 판단할 수 있으며,

(나)는 줄글로 씌어 있는 것을 보아 택리지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은 벽란도, 송악산, 고려 도읍 등으로 개성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가)는 국가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② (가)는 조선 초, (나)는 조선 중후반입니다.

③ 백과사전은 주관적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팩트만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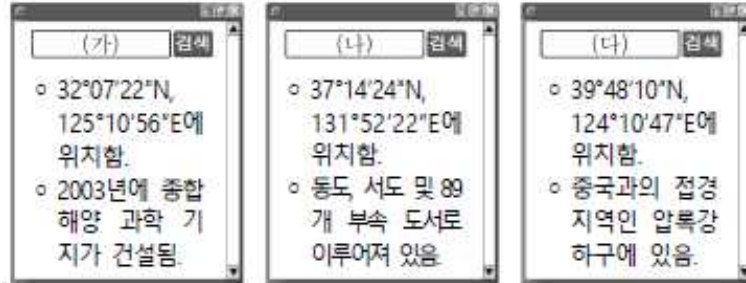
④ 개성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도시입니다. ex)선죽교

⑤ 가거지는 '지리' '인심' '생리' '산수'로 구성되는데, '산수'는 쉽게 말해 레저생활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나타냅니다. ㉠은 주민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인심'과 관련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극점 탐색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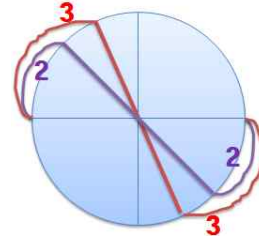
작년부터 한지, 세지 막론하고 자주 나오는 경위도 문제입니다. 출제 트렌드 인 것 같네요.



자료 (가)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어도입니다.

자료 (나)에서는 동도 및 서도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독도입니다.

자료 (다)에서는 고위도 지역인 것 같네요. '중국 접경 지역', '압록강 하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압록강 하구의 마안도(비단섬)입니다.



- ① 이어도는 우리 영토가 아닙니다. 그냥 암초일 뿐...
- ② 독도는 우리 영토의 최동단 맞습니다. 이어도와는 다릅니다.
- ③ 마안도는 압록강의 섬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하는 강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데, 각각 서쪽, 동쪽으로 흐릅니다. (저는 '압돌'라 라고 외웁니다.) 고로 마안도는 서해상의 섬이죠.
- ④ 이 선지가 조금 난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어도는 북위 32도, 독도는 북위 37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지는 대척점에 대해 언급하지만 결국 대척점과 적도 사이의 거리를 묻고 있으므로 대척점 대신 이어도와 독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현 위치든 대척점이든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도가 독도보다 남쪽에 있으므로 적도까지의 거리는 이어도가 짧지요.
- ⑤ 우리나라 일출시각 1등은 독도입니다. 극동이기 때문입니다.

#4 자연재해 판단

답 ①

자연재해 판단문항은 쉽습니다. 워낙 제각각 특성이 달라서 말이죠.

(가)는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로 폭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나)는 호우+강풍=태풍으로 판단합니다.

(다)는 '리히터규모'로 지진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동파, 전열기를 보아하니 한파입니다.

- ① 폭염이 겨울에 발생하나요?
- ② 태풍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뚫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은 태풍의 피해는 적죠. (대신 호우피해는 중부지방이 큼니다)
- ③ 기후적 요인은 땅과 관련이 없습니다. 호우, 태풍 등이 기후적 요인에 들어가죠.
- ④ 한파는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옵니다.
- ⑤ 폭염으로는 바닷물이 증발합니다.

신선(?)한 자연재해가 추가된 문항입니다. 과거 경주, 포항 지진이후부터 본디 나오던 호우, 태풍, 대설 메타가 깨지고 지진, 한파, 폭염 같은 새로운 자연재해들이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9 학년도 수능에 폭염이 등장하였으니, 곧 미세먼지도 여기에 등장할 것 같네요. 자연재해는 특성상 워낙 피부로 느끼는 게 크니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5 영남 지방의 인구 변화

답 ③

<인구 변화>
(단위: 천 명)

지역	자연 증가	순이동
(가)	53.0	-96.2
(나)	-2.1	-2.0
(다)	12.9	73.1

* 순이동 = 전입 인구 - 전출 인구
** 자연 증가와 순이동은 2010 ~ 2017년의 각 연도별 합인.



A지역은 충북이 감싸고 있는 문경입니다.

B지역은 대프리카, 대구입니다.

C지역은 부산의 침상도시중 하나인 양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밑의 김해)

(가), (나), (다) 지역 특징을 살펴봅시다.

(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변동 수준이 미미하므로 사실상 아무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저 중 깡촌인 문경으로 파악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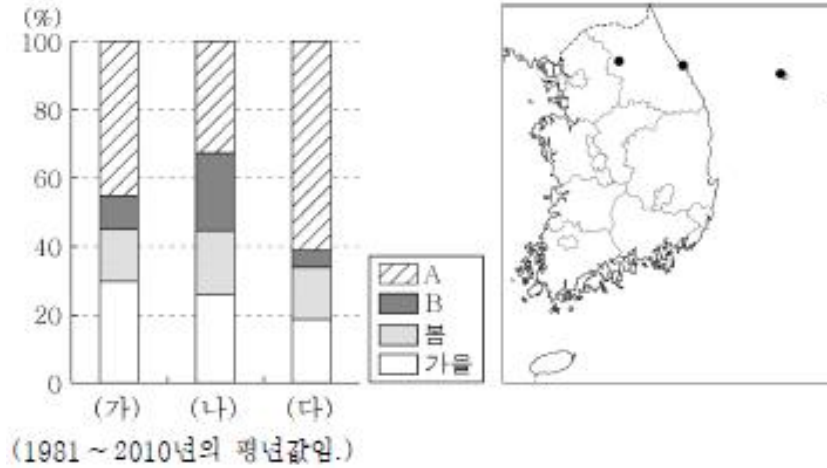
그럼 (가)와 (다)가 남았는데, 부산의 (그리고 다른 대도시의) 침상도시는 날이 갈수록 대도시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로 인해 순이동이 뚜렷합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다) 는 양산시임이 확인됩니다.

(가)를 대구로 먼저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구는 다른 두 지역에 비해 기본적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출생인구(자연증가인구) 역시 많겠죠? 즉, 가장 높은 자연증가를 보이는 (가)를 대구로 판단해야 합니다.

#6 지역별 강수 파악

답 ⑤

이 문제는 각 계절별 강수 비중으로 지역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름과 겨울이 A와 B로 블라인드 되어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보죠. 답은 쉽습니다. 당연한 상식을 기반으로 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여름, B-겨울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은 춘천쯤 되는 강원도, 강릉, 울릉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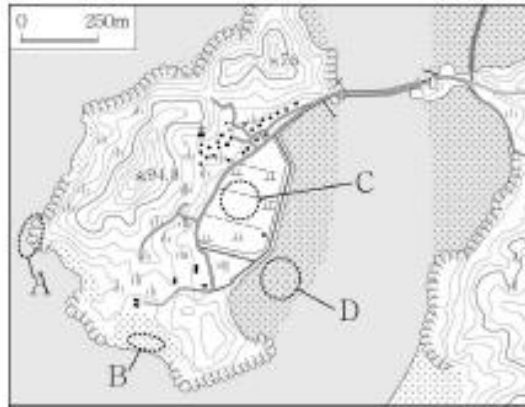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역은 울릉도 입니다. 겨울강수량 남한 1위에 집중률 또한 높죠. 바로 (나) 가 울릉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자연지리의 보배입니다.)

(가)와 (다)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내륙은 해안보다 겨울에 비가 적게 온다는 점을 감안 하면 강릉이 (가), 춘천이 (다)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우데기는 울릉도의 건축 기법으로 대설에 대비한 가옥입니다.
- ② 겨울강수 집중률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울릉도가 짱입니다.
- ③ 기온의 연교차는 다양한 요인이 결정하지만, 간단하게 격해도로 판단해 봅시다. 울릉도는 섬이고 춘천은 내륙입니다. 당연히 울릉도의 연교차는 춘천보다 작습니다.
- ④ 여름에는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나타납니다.
- ⑤ 강릉은 춘천보다 겨울기온이 높습니다. 격해도 때문입니다.

#7 해안지형

답 ⑤



지형도가 나와 있고, ABCD도 주어졌습니다. 바로 파악해 봅시다.

A는 암석해안입니다. 저 여드름 같은 돌기는 암석이라는 뜻이죠.

B는 땡땡이들이 바다가 아닌 육지에 있는 걸로 보아 사빈임을 알 수 있습니다.

C는 이상합니다. 분명 논이고 옆의 육지와 뭔가 달라 보이네요. 갯벌을 매립한 매립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갯벌 근처에 생긴 '인위적인' 논은 간척지로 이해하세요.

D는 B와는 반대로 땡땡이들이 바다에 있습니다. 갯벌임을 파악할 수 있죠

ㄱ. A는 바닷물에 의해 깎여나가서 암석이 해안에 남아있습니다. 당연히 퇴적되는 만 보다는 침식되는 곳에 분포합니다. 거르고요

ㄴ. C는 위에 언급했듯이 인위적인 매립지입니다. 거르고요

음? ㄱ, ㄴ이 아니니 답은 ㄷ, 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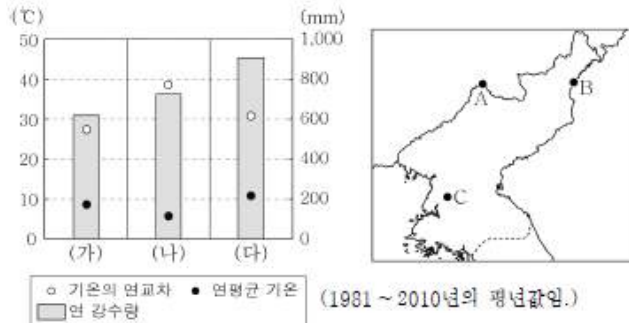
만약 시간이 없다면(Ex : 7번까지 풀었는데 13분이 넘어갔다면) 일단 체크하고 넘긴 후 돌아와서 남은 선지를 판단합니다.

ㄷ. 갯벌은 상식적으로 서해안에 많이 분포합니다. 조차가 작은 동해안은 갯벌이 조성되기 힘들죠.

ㄹ. 사빈은 갯벌보다 모래비중이 높습니다. 사빈은 사력질(모래 사)이고 갯벌은 점토질입니다.

#8 북한의 기온 및 강수

답 ③



ABC지역이 주어졌고,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ABC부터 파악해 봅시다.

A는 중강진입니다. 간혹 백두산이랑 헛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북쪽을 하나의 함수로 보면 첫 번째 극대점이 중강진, 두 번째 극대점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어렵겠네요.

그냥 서쪽 봉우리는 중강진, 가운데 봉우리는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쪽은 나오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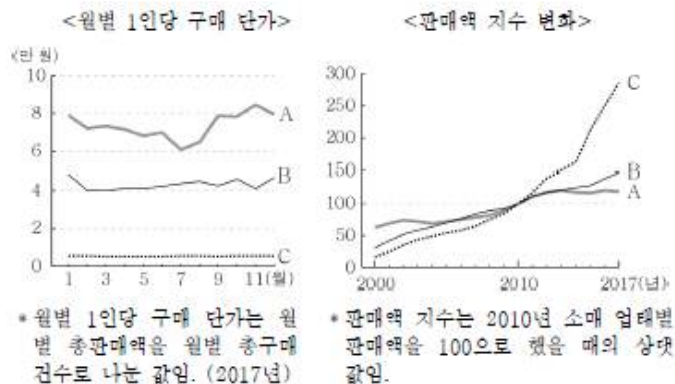
B는 청진입니다. 함경북도 동해안 도시는 많아봤자 나선, 청진인데 러시아 쪽이면 나선, 더 남쪽이면 청진입니다. 지역 위치는 문제와 지도를 자주 접하면서 감각적으로 익히도록 합시다.

C는 평양입니다. 폭 들어간 만에서 좌편 동쪽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는 중강진, 청진, 평양입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있죠? 중강진 픽 하고 넘어갑시다. 기온이 겁나게 낮은 곳(=연교차가 큰 곳)이 중강진이죠. 즉, (나)는 중강진입니다. 이제 평양이랑 청진이 남았는데 청진도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북한 및 한반도의 최소우지인 청진은 강수그래프를 보고 판단합시다. (가)가 청진입니다. 남은 (다)는 평양이죠.

#9 소비 업태 파악

답 ①



* 월별 1인당 구매 단가는 월별 총판매액을 월별 총구매건수로 나눈 값임. (2017년)

* 판매액 지수는 2010년 소매 업태별 판매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임.

주어진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입니다. 주어진 자료는 월별 1인당 구매단가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판매액 지수 변화표.

간단히 해결해봅시다. 여러분은 편의점 가서 샤넬백을 사고, 백화점에 가서 껌 한통을 사나요? 아니죠. 샤넬백은 백화점에서, 껌 한통은 편의점에서 사죠. 그러면 1인당 구매단가 그래프의 정의를 바탕으로 A는 백화점, C는 편의점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B는 대형마트고요. 선지판단 꼭 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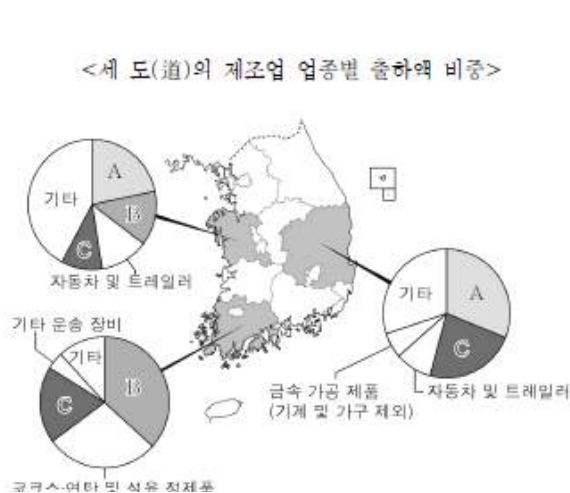
- ① 백화점은 교통이 유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입점하려고 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여담으로 롯데가 이런 위치는 기똥차게 잡아내죠)
- ② 서울역에 있는 편의점에서 껌 사려고 강릉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지만, 서울역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샤넬백 사려고 강릉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있죠.
- ③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대형마트는 B이고, 2017년에 꼭해봐야 판매액 지수가 150이에요. 두 배로 뛰진 않았습디다.
- ⑤ 전국 소매 업체 수는 편의점이 가장 많고 백화점이 가장 적습니다.

#10. 지역의 산업 판단

답 ⑤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은 충남, 전남, 경북, 주어진 산업은 철강, 화학, IT 입니다.

수2에서 배운 집합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 나타나있는 ABC를 정리해 봅시다.



	A	B	C
충남	O	O	O
전남			O
경북			O

충남에는 ABC가 모두 존재합니다.

경북에는 AC가 존재합니다.

전남에는 BC가 존재합니다.

세 지역의 교집합 산업은 C이고, 이는 철강입니다.

철강은 포항, 광양, 당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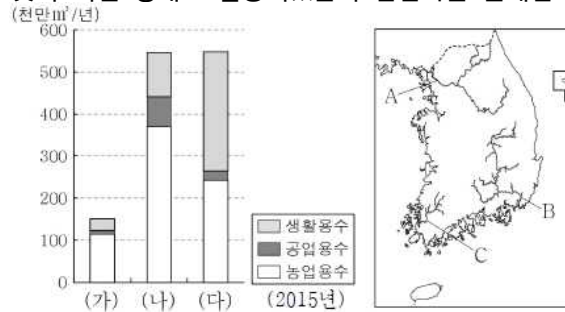
남은 두 산업은 화학과 IT입니다. 화학은 울산, 여수, 서산에 위치하고, IT는 경기도, 천안아산, 구미에 위치합니다. 경북의 A는 IT, 전남의 B에는 화학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ㄱ. IT는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지 않습니다.
- ㄴ. 6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한 산업은 섬유입니다.
- ㄷ. 철강은 중간재 산업으로 최종제품은 자동차산업 등에 이용됩니다.
- ㄹ. IT는 화학산업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화학산업은 기계화가 이루어진 산업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석유를 끓이면 타 죽습니다)

#11 우리나라의 하천

답 ③

하천의 물 자원 이용량과 그것이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하천은 A-한강, B-낙동강, C-영산강 입니다.

바로 파악해 봅시다. (가) 하천은 가장 물 이용률이 적죠. 영산강입니다. 타 하천과 비교해서 유역 및 인구 모두 작습니다. 남은 건 이용량이 비슷해 보이는 (나), (다) 하천인데... 간단합니다. 한강과 낙동강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사람이 사나요? 당연히 한강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끼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생활용수 비중이 낙동강보다 높겠네요. 따라서 (나)는 낙동강, (다)는 한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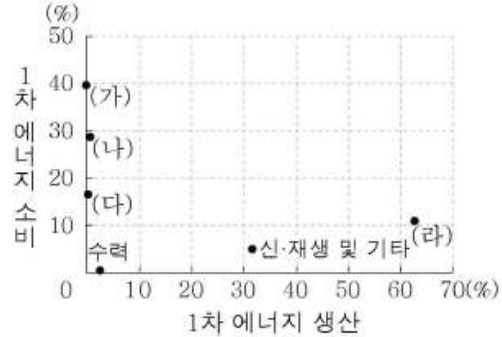
- ① 낙동강은 부산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서해안이 아닌 남해안입니다.
- ② 한강하구는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덕분에 하굿둑이 없습니다.
- ③ 한강의 유역면적은 당연히 영산강보다 큼니다. 눈만 있으면 파악하는 선지죠.
- ④ 영산강은 (가) 입니다.
- ⑤ 한강은 (다), 낙동강은 (나)입니다.

#12 1차 에너지원별 생산소비 파악

답 ④

‘유탄엘원신수’, 대한민국의 1차 에너지 소비순서입니다.

- (가) 석유
- (나) 석탄
- (다) LNG
- (라) 원자력



- ① 석유는 수송용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가정용은 LNG가 많이 이용됩니다.
- ② 원자력을 냉동시키고 액화시켜서 이용하지 않죠. LNG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석탄이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빠릅니다.
- ④ LNG는 석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 ⑤ 원자력은 생산량=소비량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으로 지지고 볶고 하면 원자력에너지가 생산됩니다. 맨 위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순서를 보면 석유 소비량이 원자력 생산량(=소비량)보다 많습니다.

#13 석회암 현무암 판단

답 ③

(가)는 삼척, 증유석, 석순, 석주로 석회암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주도, 즉 현무암입니다.

- ① 석회암은 평안누층군이 아닌 그 밑의 조선누층군에 분포합니다.
- ② 시멘트 공업은 석회암을 이용합니다.
- ③ 석회암은 고생대에 생성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무암은 신생대 3기에 형성되었습니다.
- ④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 ⑤ (가)는 퇴적암, (나)는 화산암입니다.

#14 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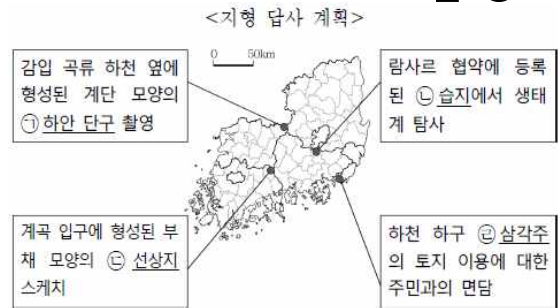
답 ②

해설하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시면 답 나옵니다.

#15 지형 판단

답 ④

- ㉠ 하안단구
- ㉡ 습지
- ㉢ 선상지
- ㉣ 삼각주



㉠. 하안단구는 과거 하상으로 동근 자갈이 발견됩니다.

㉡. 솔직히 좀 학평스럽네요. 삼각주의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시험 도중에 '이건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니 일단 넘어가 봅시다.

㉢. 신생대 지반용기는 습지와 상관없습니다. 하안단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죠.

(용기 → 감입곡류 → 단구생성 BAAM)

㉣. 선상지는 삼각주보다 상류에 위치하고, 퇴적물이 아직 덜 깎여서 더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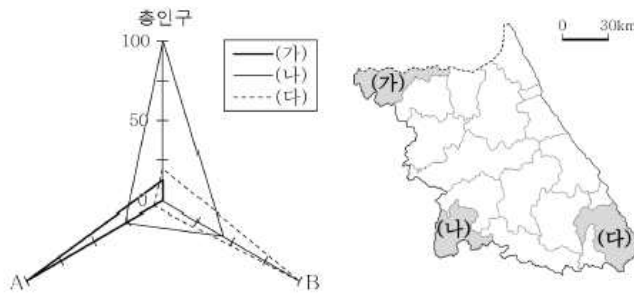
㉢ 선지를 세모라고 치면 완벽히 맞는 선지는 ㉠과 ㉣이지만, '㉠, ㉣'이 선지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아리까리했던 ㉡ 선지를 통과시키면 '㉠, ㉡, ㉣'이 답입니다.

약간 야매로 끼워 맞추긴 했는데... 뭐 어찌겠습니까. 시험장에서는 맞추면 장땡이죠.

수능특강 p38에 삼각주에 관한 추가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강원도 지역 판단. 인구 & 자원

답 ①



* 지표별 최대 지역의 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임. (2017년)

세 지역과 A, B가 빠진 삼각형 그래프가 제시되었습니다.

강원도의 북서쪽 끝 북한과 맞닿아 있고 용암대지가 있는 곳! (가)는 철원입니다.

내려가면 강원도의 남서쪽 끝, 인구 1위인 (나) 도시는 원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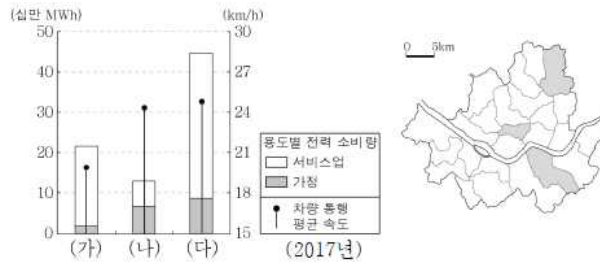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강원도의 동남쪽 끝.... 그냥 삼척입니다.

삼각형 그래프로 가봅시다. A는 (가)가 독보적으로 높고, B도 (다)가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얼마 없는 강원도의 경지 중에서 철원에는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용암대지에서는 현무암층 위에 쌓인 '미지의 층'에서 쌀을 재배합니다. 따라서 A는 쌀 생산량입니다. 삼척은 현재 남은 탄광(화순, 태백, 삼척)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광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17 서울의 구별 특성 파악

답 ⑤

19수능에는 변형된 지역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모의고사에는 전통적인 지역이 나왔습니다.



노원구, 중구, 강남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선 노원구 대신에 강서구가 나왔고 이들은 모두 서울의 배드타운 입니다. 그리고 중구 대신에 종로구가 나왔고 이들은 모두 거주인구는 적지만 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남은 하나는 강남구인데 거주인구도 많고 유입인구도 많은 킹갓짱짱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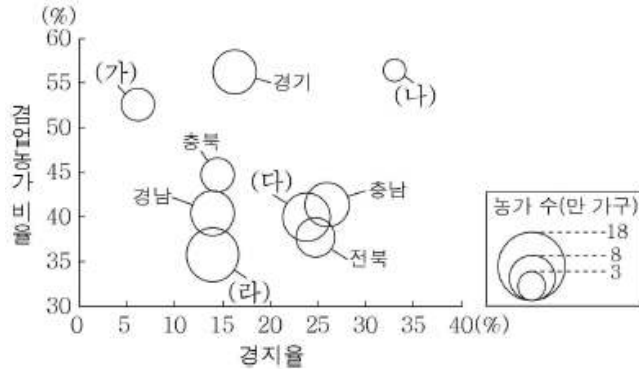
그래프 판단을 해봅시다. 우선 가장 전력소비량이 많은 그래프는 (다)이고, 그 구는 강남구입니다. 사는 사람도 많고 유입되는 인구도 많습니다(주간인구지수 200급). 남은 (가), (나) 그래프는 특성이 더더욱 명확합니다. (가)는 서비스업 전력 사용량 비율이 높고, (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비율이 높습니다. (가)는 주간인구지수 400급인 중구이고, (나)는 서울의 배드타운 노원구입니다.

- ① 중구는 노원구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 ② 중구는 강남구보다 상주인구가 적습니다.
- ③ 노원구는 중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멍니다. 노원구민이 중구가선 일하는 경우는 있어도 중구구민이 타지역가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 ④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지가가 싸입니다. 그래서 배드타운이 조성된 것이고요.
- ⑤ 강남구는 노원구보다 주간인구지수가 높습니다. 업무지구 vs 배드타운 입니다.

#18 농업의 지역성

답 ④

강원, 경북, 전남, 제주가 주어졌고, 경지율이 x축, 겸업농가 비율이 y축인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지역은 (가), (나) 입니다. 모두 겸업농가 비율이 높습니다. 강원, 제주가 해당됩니다. (가)는 경지율이 가장 작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농가수가 가장 적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다)와 (라)... 아주 혼란스럽네요. 그럼 어찌겠습니까? 일단 버리고 갑시다.

- ① 겸업농가 수와 전업농가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겸업/전업농가 비율을 보는 것 입니다. 전업농가 비율이 50%가 넘으니 당연히 맞는 선지입니다.
- ② 강원도는 과수를 재배합니다. 하고말고요. 그런데 경지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전남 경북의 과수 재배 면적이 더 넓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아직 모르니 세모 치고 지나갑시다.
- ③ 눈을 굴리세요! (다), (라) 판단과 무관합니다.
- ④ 제주도는 현무암 지층으로 인한 구멍 뚫린 지표 때문에 논 비율이 낮습니다. (여담으로 18~19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지엽이에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선지가 옳습니다.
- ⑤ 눈으로 판단하세요.

어? (다), (라)는 어찌구요? 답이 나오네요?????

이게 객관식의 묘미입니다. 모든 선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 더 정확히 판단해봅시다.

(다)는 충남과 전북의 그래프상의 위치와 원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즉, 서부평야의 세 친구들 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다)는 전남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라는 경북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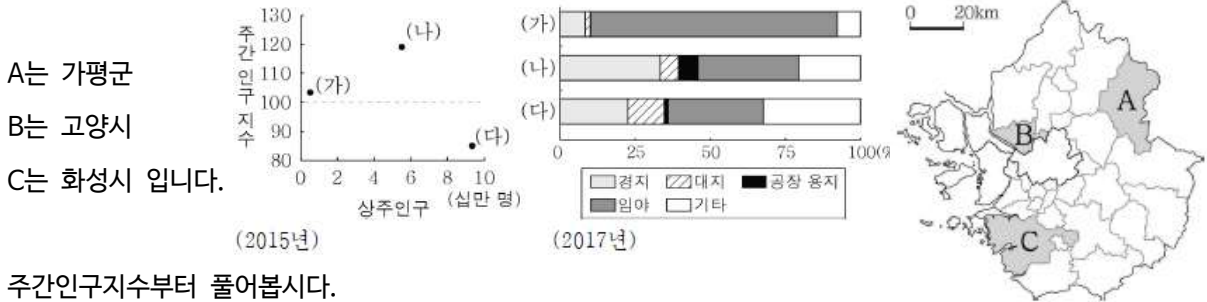
그럼 아까 아리까리했던 2번 선지로 돌아가 봅시다.

- ② 강원은 경북보다 과수재배 면적이 당연히 적습니다. 경북 과수생산량은 엄청나거든요. (경북1위 제주2위)

#19 수도권 인구파악

답 ②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지수 그래프와 대지별 토지이용현황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A는 가평군
B는 고양시
C는 화성시 입니다.

주간인구지수부터 풀어봅시다.

수도권 주간인구지수는 서울로부터 80-90-100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고양시는 80인 (다)로, 가평'군'은 100인 (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 지역은 강촌이라... 주간인구지수는 100이라 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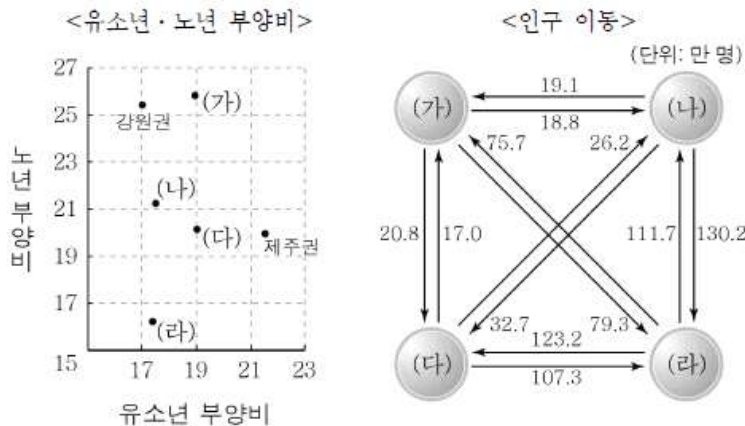
그럼 화성이 남는데... 주간인구지수 120? 화성은 배드타운 아닌가요? 동탄신도시도 있고요...

화성에 신도시도 있으니 배드타운 일거 같은 느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건 '동탄'만 해당됩니다. 화성에는 기아차 공장도 있고 하물며 동탄에 삼성전자 공장도 있습니다. 옆의 이용률 그래프를 보면 공장용지 비중이 (가), (나), (다)중에서 (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화성으로 일하러 오는 노동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화성시가 됩니다.

#20 인구이동 문제

답 ②

대한민국의 6권역 중 강원, 제주가 주어지고 남은 권역을 묻는 문제입니다.



왼쪽 자료부터 파악해보죠.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가), 그곳은 호남입니다. 전남이든 전북이든 노년인구 비중이 매우 높죠.

그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다), (라)가 남았는데 잘 판단이 안 되는군요. 옆의 자료로 넘어가봅시다.

2018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 18학년도 트렌드의 자료입니다. (가)에 호남을 적어두고, (나), (다), (라)를 주목해 봅시다. 한눈에 봐도 (라)와 상호작용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는 수도권이겠군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충청권은 현재 전 권역에서 순이동이 양의 값입니다. 모든 권역과의 인구 상호작용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다는 것이죠. 바로 (다)는 충청권임을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영남권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눈알 굴리세요!

② 수도권과 영남권은 유소년 부양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년부양비는 영남권이 두 칸 정도 위에 있죠. 노년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 합이 더 작은 쪽이 청장년층 비중이 크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③ [영남 → 호남 : 19.1] < [충청 → 영남 : 26.2]

④ 서울 하나로 영남권은 넉다운 됩니다.

⑤ 호남은 수도권으로 3.6만 명의 순유출을 보이고, 충청은 수도권에서 15.9만 명의 순유입을 보입니다.

오답률 순위

1. #5 - 62%
2. #19 - 57%
3. #10 - 56%
4. #16 - 52%

#	지역지리	인문/자연	키워드	배점
1	호남	인문	슬로시티, 비빔밥, 녹차, 원자력발전소, 굴비	2
2	X	인문	신증동국여지승람, 택리지	3
3	X	인문	종합해양과학기지, 131° 52', 압록강 하구	2
4	X	인문	자연재해, 수분섭취, 호우, 강풍, 리히터규모, 동파	2
5	영남	인문	순이동, 자연증가	3
6	X	자연	우데기, 겨울강수집중률, 연교차, 서고동저	3
7	X	자연	꽃, 만, 하천의 퇴적작용, 퇴적물질	2
8	X	자연	연교차, 연평균기온	2
9	X	인문	소매업체, 재화의 도달범위	3
10	충남 경북 전남	인문	적환지 지향형, 최종제품	3
11	X	인문	유역, 하굿둑	2
12	X	인문	수송용, 가정용, 냉동액화기술, 대기오염물질	3
13	X	자연	중유석, 석순, 석주, 용암, 평안누층군, 시멘트, 대보조산운동, 화성암, 퇴적암	2
14	X	인문	GIS	2
15	X	자연	하안단구, 선상지, 습지, 삼각주, 둥근 자갈, 자연제방, 신생대 지반용기, 입자크기	3
16	철원 원주 삼척	인문	광업 사업체 수, 제조업 종사자 수	2
17	노원구 중구 강남구	인문	용도별 전력 소비량, 상주인구, 평균지가, 주간인구지수	3
18	X	인문	겸업농가, 전업농가, 과수 재배 면적, 경지율	3
19	고양 가평 화성	인문	인구현황, 토지이용률, 주간인구지수, 상주인구, 대지, 임야	2
20	X	인문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청장년인구비율, 유입, 유출	3

여

백

B

L

A

N

K

MIKANG

19학년도 한국지리 47 50 50

학생을 컴퓨터 취급하는 GIS 아웃!

법과 정치 (IMIN 762906)

19학년도 한국지리 50 47 48

법정특) 법정 해설 안하고 한지 해설함